한라시론

자조금 안내면 정부 지원 제한 받아

문 영 인
서제주키위연구회

우리나라를 바꾼 새마을운동은 1970년부터 시작됐고, 근면·자조·협동은 새마을정신이라 해 모든 분야에서 한동안 많이 활용됐던 낱말이다. 자조(自助)는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이 2012년 제정되고 의무자조금 단체가 늘어나면서 부활됐다. 법의 주요 내용은 농수산물 생산자 스스로 생산량을 조절하고 소비촉진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자조금'을 조성할 수 있게 중앙정부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자조금'은 생산자와 생산자 단체가 납부하는 '의무 거출금'과 중앙정부에서는 생산자들이 거출한 금액에 상당하는 지원금으로 구성되며 이것을 재원으로 해 자조금 단체 스스로 해당 품목의 수급을 조절해 안정적인 소득을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간접 지원을 하는 것이다.

키위 자조금의 경우 (사)한국키위연합회가 2017년 농식품부로부터 승인을 받아 자조금을 설치했으며, 개별농가에게는 2021년부터 고지서를 발송해 의무 거출금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있다. 납부 대상자는 농업경영체 등록 시 키위 재배면적이 1000㎡ 이상 농업인 및 법인과 전년도 취급액 1억원 이상인 농협 등 회원단체이다. 의무 거출금 면제대상은 수확하지 않는 어린나무와 자연재해 피해를 받은 경우 피해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 면제 받을 수 있다. 납부금액 산정 기준은 재배면적 ㎡ 당 30원으로 1500평을 재배 할 경우 15만원의 금액을 납부해야하며, 회원단체는 취급액의 0.3%이내 금액을 납부하도록 돼 있다. 의무거출금을 납부한 농가의 경우 납부금액에 비해 직접 받는 혜택은 작업월력과 협회에서 발행하는 정기간행물이 전부이며 교육이나 소비홍보, 포장개선 등에도 지원되고 있지만 농가들은 잘 알지 못해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다.

자조금의 용도는 자율적 수급조절을 위한 활동과 정보제공, 유통구조개선 및 수출활성화 사업 등에 사용 할 수 있다. 자조금 단체 화원인 농업인이 의무 거출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농식품부장관은 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해당 농산물의 생산, 유통, 수급조절 등을 위한 23개 정부 보조사업의 지원을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 할 수 있고, 자조금의 용도를 위반해 사용하거나 의무 거출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게 돼 있다. 2022년 2월 기준 농산물 의무자조금 설치 품목은 감귤 등 16개 품목이며, 이 중 제주에 해당되는 품목은 친환경 키위, 감귤, 마늘, 양파이나 계속 증가돼 나갈 것이다. 앞에 열거한 품목을 재배하는 농업인이 의무 거출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유기농업자제 지원사업과 농업재해보험료 중 국·도비 지원금을 제한 한다고 한다. 유기농업자재 지원은 인증농가에 해당되는 사업이지만 농업재해보험 가입자가 많아지는 추세인데, 내년부터 재해보험 가입 전 꼭 의무 거출금을 납부해야 보험료를 지원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해야 하겠다.

사설

해외여행 재개 본격… 유인책 강화를

다음달부터 일본에 이어 동남아권 국가 해외여행 '빗장'이 풀려 제주관광 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지 벌써 우려된다. 그간 제주관광이 코로나19 사태에도 국내 관광객 특수를 누렸지만 인접국가들의 잇따른 해외여행 재개 탓에 제주를 외면할 수 있어서다. 제주가 오히려 선제적으로 해외시장을 겨냥한 과감한 시책들을 전개,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로 삼아야 할 필요성이 매우 커졌다.

해외여행은 일본 정부서 2년 반만에 코로나19로 제한해 온 개인여행을 재개키로 한데 이어 다음달 홍콩, 대만, 태국 등 동남아권 국가들도 가능할 전망이다. 당장 29일 오사카~제주 직항 항공기가 등장한데 이어 11월부터 부정기 항공편도 취항예정이다. 제주기점 국제선이 중국 시안, 태국 방콕, 싱가포르서 일본 오사카에 이은 동남아권까지 확대되는 것이다. 해외여행 본격화 조짐은 도내 여권 발급 건수 폭증서도 확인된다. 9월 둘째주 353건에서 넷째주엔 782건에 달할 만큼 급증했다. 잇따른 해외여행 재개는 제주만 찾던 관광객들의 여행패턴에 큰 변화를 줄 수밖에 없다. 최근 엔저 약세 추세에다 억눌려온 해외여행 심리 폭발, 제주기점 직항편 확대 등이 해외관광수요를 더 부채질 할 것이다.

제주관광이 그간 누려온 국내 관광지 입지를 송두리채 뺏길 위기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외국 나가는 수요를 채울 외국인 유치 전략에 선제적으로 맞대응해야 한다. 제주관광이 지닌 콘텐츠와 여행 상품 보강, 해외노선별 새 유치 전략, 인센티브 강화 등 동원 가능한 시책들을 재점검할 때다.

항공우주산업, 미래 먹거리 급부상 주목

항공우주산업이 제주의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도내 국가위성통합운영센터가 최근 가동중인데 이어 국제우주교육훈련센터 설치도 적극 검토되는 단계다. 오영훈 지사도 항공우주산업을 새 성장동력으로 키울 의지를 확실히 보여 미래산업 육성의 새 전기를 예고하고 있다.

제주 항공우주산업은 최근 관련 기관의 개소와 교육기관 유치 가능성 탓에 더 주목된다. 구좌읍서 8월 본격 운영에 들어간 국가위성통합운영센터는 국가의 위성관제와 영상 수집·분석 등의 중요한 기능을 맡고 있다. 국제우주교육훈련센터 제주 유치도 지리적 위치와 기존 인프라 등을 고려해 대통령에게까지 건의된 것으로 알려져 성사 가능성이 나온다. 그간 민간로켓이 작년말 제주 발사 성공을 계기로 민간 우주발사장 조성, 연구개발센터 건립 등을 거론해 상황이다. 여기다 오 지사도 민간주도 우주발사와 우주센터건립을 추진하고, 항공우주산업을 미래 산업으로 발전시켜 가겠다고 확언, 향후 민간 항공우주산업의 비약적 발전 가능성까지 점쳐진다.

제주 항공우주산업은 최적의 조건에다 도심항공교통, 그린수소 글로벌 허브 등 관련 미래산업도 박차를 가하고 있어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만하다. 항공우주산업이 농어업, 관광중심의 취약한 도내 산업구조를 개편하면서 관광수요와 부가가치 창출 역할을 톡톡히 할 수 있어서다. 다만 주민 수용성은 간과하지 말아야 할 과제다. 과거 국가주도 우주센터 후보지 1순위가 제주였지만 반대 여론탓에 무산, 전남 고흥으로 변경된 사례를 거울삼아 우려 해소에 총력 대응해야 한다.

편집국 25시

말 바꾼 국립수목원

김 지 은
뉴미디어부 차장
jieun@ihalla.com

"올해 11~12월쯤 열리는 심의회에는 심의 안건으로 상정될 것이다.(2022년 6월)" "12월에 심의회가 열리지만 확정된 것은 없다. 안건도 정해지지 않았다.(2022년 9월)"

얼핏 봐도 내용이 정반대다. 그런데 놀랍게도 모두 한 사람에게서 나온 말이다. 올 하반기 열리는 '국가수목유전자원목록심의회'(심의회)에 왕벚나무 국명 변경이 다뤄질 것이냐는 물음에 대한 국립수목원 측의 답변이다.

국립수목원이 말을 바꿨다. 논란이 됐던 사안인 만큼 말을 아끼는 거라고 생각하기엔 어딘가 석연치 않다. "더 많은 전문가 의견을 취합"하겠다고 했던 국립수목원이 심의회 안건조차 정하지 못 했다는 게 선뜻 이해되지 않는다.

왕벚나무 기원에 대한 학문적 주장과 여러 연구 결과 등을 다 떠나 국명만 놓고 봐도 의아한 점이 있다. 우리가 흔히 쓰는 이름 '왕벚나무'를 제주 자생 왕벚나무에 가져다 붙이면 사실상 틀린 말이 된다는 거다. 국명이 '제주왕벚나무'이기 때문이다. 전 세계에서 유일한 왕벚나무 자생지인 제주가 '왕벚나무'라는 고유 이름을 쓰기 애매한 처지에 놓인 것이다. 국립수목원이 정한 국명대로라면 '왕벚나무'는 가로수로 심어진 재배 왕벚만을 가리킨다.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논의해 봐야 할 필요가 있다. 최근 산림청 주최로 한 학회가 왕벚나무 연구 관련 토론회를 열어 서로 다른 입장의 전문가 의견을 들었다는 소식이 들린다. 더 머리를 맞대야 한다.

뉴스-in

교육청 지방공무원 정원 개정 대거 승진

6급 이하 승진자 40명

○…제주도교육청은 10월 1일자 정기인사에서 승진한 6급 이하 지방공무원 40명에 대해 28일 임용장 수여식을 진행.

이번 대거 승진은 지방공무원 6·7급 비율을 향후 3개년 동안 전국 평균 수준을 고려해 상향 조정해달라는 제주교육노조의 요구 등을 반영해 도교육청이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을 개정한 결과로 급별 승진 인원은 6급 18명, 7급 18명, 8급 4명.

한편 이번 지방공무원 정기인사에서는 5급 이상은 인사 발령이 없었는데 현재 도교육청에는 3급 1명, 4급 8명, 5급 35명이 근무 중이고 제주시·서귀포시교육지원청의 5급 이상 인원은 총 8명으로 내년 조직개편 등과 맞물려 인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 진선희기자

농협 혈액수급난 해소 헌혈

○…농협제주지역본부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심각한 제주지역의 혈액 수급난 해소에 힘을 보태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이어가고 있는 '범제주농협 사랑의 헌혈 운동'에 28일까지 모두 19회에 거쳐 310명의 임직원이 참여.

농협이 대한적십자사 제주혈액원과 합동으로 벌이고 있는 헌혈운동은 올해 참여횟수 30회를 목표로 정해 농·축협의 각종 회의나 행사에서도 참여를 독려.

강승표 농협제주지역본부장은 "헌혈은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이웃사랑의 실천"이라며 "범제주농협이 지속적으로 벌이는 헌혈운동이 헌혈에 대한 도민사회의 관심을 높이고 지역의 원활한 혈액 수급에도 작은 보탬이 됐으면 한다"고 언급. 문미숙기자

감사의 말씀

이번 **이승호(청솔종합건설(주) 건축이사)** 상시에 바쁘신 중에도 정중하게 조의를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마음속 깊이 감사 드립니다. 일일이 찾아뵙고 고마운 말씀을 올림이 도리이오나 우선 지면을 빌려 인사를 올립니다.

2022년 9월 29일

부 인 이 진 영
아 들 이 현 수
지 훈
딸 이 소 윤

청솔종합건설(주)

방수 단열
우레탄
우레아
방수전문건설업
석주개발
☎ 712-3644, 782-3644
010-4690-3636

탁월한 선택! 확실한 광고 효과

한라일보 광고문의
750-2828
서귀포지사
732-5552

토지 구합니다
·제주시·
구좌읍 조천읍
조건
① 전원주택용 부지
② 허가득한 사업부지
③ 계획관리지역
베네건축
베네하우스
문의: ☎ 064-723-1105

백도라지 분말
관심과 사랑 주심에 이룬 성과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약백도라지 분말 100% 목성콜
미국식품의학회 SCI A급 등록

현대백화점,
농협 하나로마트,
경제통상진흥원판매장
판매

대한민국 최고농업기술 명인 / 2009 백도라지 명인
전화 064-783-8987, 010-5755-8987, 상담 010-2691-9316
홈페이지 : http://www.baekdoraji.com
주산지 선흘2리 용암동굴계 거문오름 일대지역
한기림JK약백도라지연구소

토지 급매 가격
1) 월드컵경기장 아래
대로변 865평 ★최저가300만원★
2) 강정동 해안도로 200m 근접
바다 조망, 한라산 조망 최고 건축가능, 아울렛예정지구 부근, 12m계획도로 진행중, 총 480평 ★평당130만원★
3) 강정동 해안도로 40m
741평, ★평당 200만원★ 펜션 및 전원주택지
4) 강정해안도로 접
607평 ★360만원★ 카페 최고뷰
5) 강정동 해안도로 100m
753평, ★평당 73만원★ 전원주택지, 투자용 최고
6) 강정동 해안도로위 땅
15m 건축 가능, 바다조망 카페용 펜션용
총 376평 ★240만원★
7) 호근동 범섬 뷰, 최고 전원주택
360평, ★평당 200만원★ 건축 바로 가능
010-2102-5424 / 010-6275-5200

서귀포시정소식

10월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운동 알림
□ 게 양 일 : 제74주년 국군의 날(10. 1),
제4354주년 개천절(10. 3), 576돌 한글날(10. 9)
□ 가정에서 태극기의 위치 : 밖에서 바라봤을 때 대문(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우 각 세대의 난간)의 중앙이나 왼쪽에 달아야 함.
※ 주택구조상 부득이한 경우, 태극기 다는 위치를 조정할 수 있음
※ 심한 비·바람 등으로 국기의 존엄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달지 않으며, 일시적 악천후인 경우에는 날씨가 갠 후 달거나 내렸다가 다시 달면 됩니다.
□ 태극기 구입 : 인터넷우체국, 인터넷 태극기 판매업체 등
※ 오염·훼손된 태극기는 각급 자치단체 민원실, 주민센터에 설치된 국기수거함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 문의사항 : 서귀포시 총무과 (☎ 064-760-2046)

'22~'23년 동절기 코로나19 추가접종 안내
□ 접종대상 : 18세 이상 기초접종(2차접종) 이상 완료한 면역저하자, 감염취약시설, 고령층(60세 이상) 등 건강취약계층
※단, 잔여백신에 한해 18세 이상 성인 기초접종자에게 접종 허용
□ 접종백신 : BA.1 기반 2가백신
※다만, mRAN 백신 접종을 원하지 않는 경우, 유전자재조합 백신(노바백스, 스카이코비원백신) 접종 가능
□ 접종간격 : 마지막 접종일 또는 확진일 기준 4개월 이후 접종
□ 접종일정 : (사전예약)9. 27.(화)~
(예약접종 및 당일접종)10. 11.(화)~
□ 접종기관 : 코로나19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 문의사항 : 서귀포보건소 (☎ 064-760-6085)

김정문화회관 '2022 토요 쿵쿵따' 교육생 모집 안내
□ 모집기간 : 2022. 9. 26(월) ~ 10. 4(화)
□ 교육 일정 및 내용

운영기간	교육시간		강사	모집인원(대상)
10. 8.(토) ~ 10. 29.(토) 매주 토요일/총 4회	카혼	10:00 ~ 11:00	김정태	20명 (초등·중·고등학생)
		11:00 ~ 12:00		
	마림바	10:00 ~ 11:00	김성재	
		11:00 ~ 12:00		

□ 교육장소 : 김정문화회관 연습실, 전시실
□ 교 육 비 : 무료
□ 신청방법 : 현장 방문 및 전화 신청
□ 선발방법 : 접수 마감 후 공개 추첨
□ 접수 및 문의 : 서귀포김정문화회관 (☎ 064-760-3792)